

'책이 삶이 되는 인문도시, 전주'

시, 도서관 공간혁신·독서문화 확산·책산업도시 구현·지속가능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 도서관·평생학습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책의 도시 조성을 선포한 전주시가 올해 이중호수도서관, 덕진공원 연화정 김이불루 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을 추가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화하는 동시에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사업을 확대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책산업도시 구현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는 11일 신년브리핑을 열어 '책이 삶이 되는 인문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도서관·평생학습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은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는 11일 신년브리핑을 열어 '책이 삶이 되는 인문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도서관·평생학습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공간혁신에 주력한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평화·삼천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책 놀이터인 개방형 창의 도서관으로 변신한 가운데 올해는 송천·금암·인후도서관이 개방형 창의 도서관으로 재개관한다. 서신·효자·쪽구름도서관은 내년 상반기 개방형 창의도서관 개관을 위한 설계 작업에 돌입한다. 건지도서관에는 덕진권역 청소년 맞춤형 독서문화공간인 '우주로 1216'이 들어선다.

시는 권역별 특화도서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다가여행자도서관과 덕진공원 연화정 김이불루 도서관 등이 올 상반기 문을 열고, △이중호수도서관 △현책도서관 △한옥도서관 △천변생태환경도서관 △책의 산 숲속도서관 등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책이 삶이 되는 독서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전주만의 도서관 인프라를 중심으로 시민,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출판사 등 책 생태계가 함께 만드는 독서문화 행사를 지속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독

서대전부터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등 기존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프레 국제 그림책 도서관'과 '책의도시 전주, 내들이 마당' 등 새로운 행사가 더해져 연중 책과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마을 속 작은 도서관과 동네책방, 공동체, 지역작가 등이 협력하는 책 축제를 여는 등 작은도서관이 책문화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책문화산업팀을 신설해 시민들의 독서 문화가 산업 성장으

로 이어지는 책산업도시 구현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30개 지역서점이 참여했던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을 올해에는 38개 지역서점으로 늘려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고, 국내 최초로 시작한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의 경우 선택형, 문화 체험형 특별 콘텐츠와 함께 전주 국제영화제와 한지축제, 비빔밥축제 등과 연계한 콘텐츠도 추가된다.

또 완산도서관 '자작자 책 공작소'를 통한 시민들의 독서·창작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과 호남권 출판문화 복합 클러스터 유치 등 국가사업 발굴을 통한 책 산업과 기반도 착실히 다져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시스템 'e스튜디오'를 구축해 변화하는 평생학습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학습-일-사회공헌으로 선순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최라기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올해는 출판·기록 문화의 중심도시 전주에 걸맞은 다양한 책 문화 사업을 확대하고 도서관 인프라도 확충해 책이 시민 삶에 녹아드는 품격 높은 인문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거 안정 위해 최대 2000만원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올해 도비 2억2400만 원 등 총 6억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전주시 거주자다.

시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

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전화(063-281-2445)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욱 시 주거복지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0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전주시립요양병원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법인이사 교체일)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0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평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하승호 공공보건팀장이 공공의료발전 유공자로 각각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공공병원 중 노인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사업 △미충족서비스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전국 최우수 공공요양병원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적정진료,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재가치매노인방문



간호사업, 집단인지재활프로그램 연구사업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2013년, 2016년, 2019년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올해의 지속가능발전인상' 수상

시상식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실현 헌신 공로 올해 수상기관 선정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태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전주시가 지방정부로서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11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올해의 지속가능발전인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올해의 수상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올해의 지속가능발전인상'에서 시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시정 반영과 가치 확산 △전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개발과 관리를 통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선도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시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간기구 등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시민과 행정이 같이 측정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거버넌스형 SDGs 지표를 개발·관리하면서 지표들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형 SDGs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30일부터 3일간 '지속가능발전의 희망, 탄소중립에 답다'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탄소중립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영감과 에너지를 교류하며 실천 방안을 공유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

다.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평가지표를 세우는 한편, 개발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과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들부터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 등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전략들이 이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전주다운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고층 빌딩보다 녹색 생태,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생명존중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새해 첫 전주시 통합돌봄 자문회의 열어

전주시는 11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과 등 4개 부서장과 직원, 통합돌봄 총괄자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전주시 통합돌봄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년간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 시민으로 돌봄이 확대되는 융합형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전주형 통합돌봄 2022'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75세 이상 전수조사를 통한 건강과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

보건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공성 강화 △24시간 안심서비스 및 동행지원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 △사회보장특발지원구역 분야 △통합돌봄 생활방역 분야에 이어 △융합형 행정협의 및 지역지원 발굴·연계 분야에 전주시 복지재단 이춘배 사무처장이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돼 총 5개 분야 전문가의 활발한 자문에 기대가 모아진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